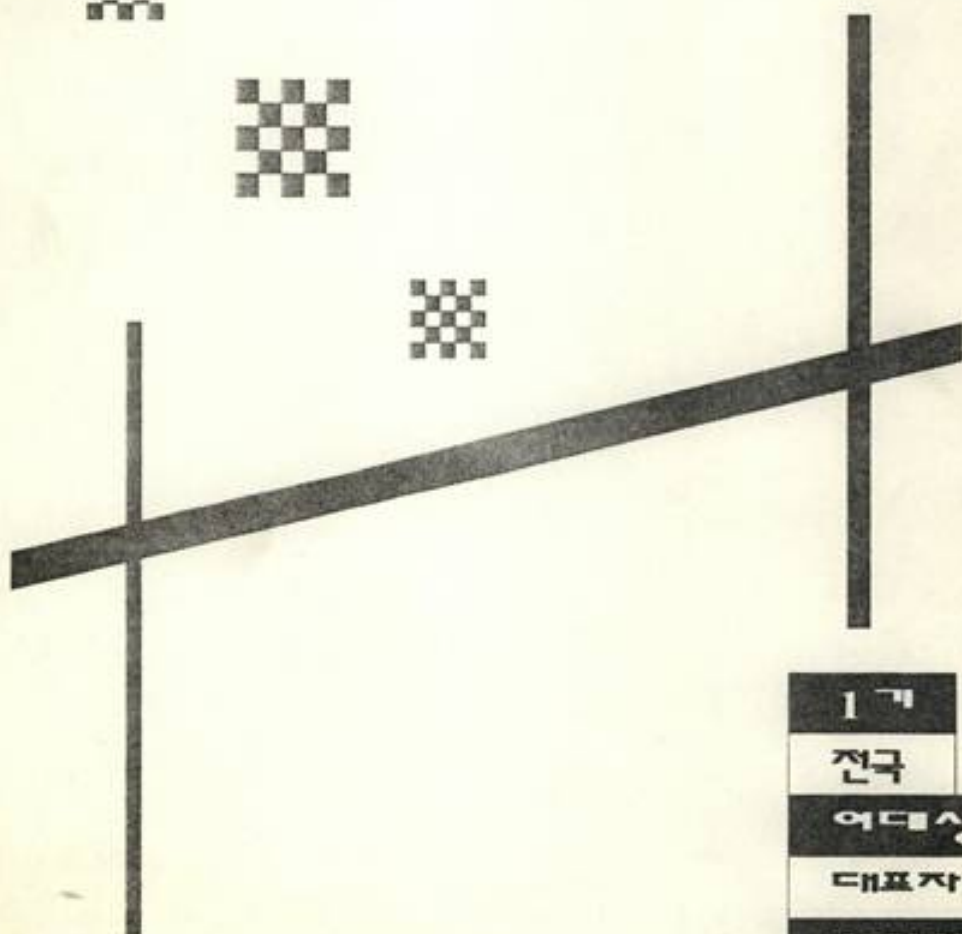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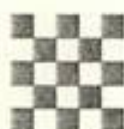


전여대협 간부 수련회 자료집

시련의 고개 넘어
투쟁과 투쟁속에



1기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글 실는 순서

전여대엽 상반기 총화 3

전여대엽 하반기 사업해설 5

주제 토론 기조 발제문 7

지역 여대엽 상황 13

후배의 편지 16

북녘에 보낸 편지 18

전국 총여학생회 주소록

어렵지만 힘차게 걸어 왔던 상반기

통일원년을 맞이하여 남한 사회의 여학생운동을 하는 조직인 각 학교 총여학생회는 여학생운동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가지면서 남한 사회를 변혁을 지향할 것에 대한 요구를 가지면서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그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어려움들이 바로 전여대협의 상반기 활동 속에 녹아들어 있고 볼 수 있다. 전여대협의 건설 과정에서부터 전여대협 상반기를 총화하여 앞으로 일보전진한 여학생운동 채로 나아가자.

1. 사상적인 부분에 있어

올해 전여대협을 건설하면서 여학생운동의 사상적인 부분을 해명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건설의 단계에서 여학생운동의 사상적인 부분을 해명한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존재하며 아직도 우리는 우리운동에 대한 사상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 동안 전여대협의 활동속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일정정도의 성과점이 있다. 그것은 여학생운동의 사상을 해명하기 위하여는 지금 남한 사회의 여대생의 처지와 조건에 근거하여 여대생들이 특수성을 밝혀 내고 그에 기반한 운동을 펼쳐야 하며 그 내용으로 우리는 여대생이 여성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것을 올해 여학생운동의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여학생회의 사업에 대한 고민 속에 여학우 대중이 어떻게 우리의 사업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의 고민이 없었던 것이다. 올해 여성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여학생운동의 사상적인 부분의 목표로 삼았지만 아직도 여학생운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여학생운동을 사상적으로 풀 것에 대한 막연한 요구만 있을 뿐 그것을 진정으로 대중 사업과 조직사업속에서 실천할 것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2.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

지역 여대협의 강화로 각 단위 총여학생회의 강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여대협의 상황들이 지역여대협을 강화해 낼 만한 역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러나 지역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지도를 중앙에서 내려주기는 어렵지만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지도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층에서부터 강화되어 상층이 건설되고 강화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 조직은 그런 단계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것은 바로 여학생운동을 이끌고 있는 각 학교 총여학생회장님들의 여대협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각 학교 총여학생회장님들의 여학생운동을 풀어 나가는 범위에 대한 지역과 전국으로 시각을 높일 것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3. 대중적인 부분에 있어

올해 1기 전여대협은 3월 초에 지역 의장님들이 처음 모여서 전여대협 건설을 논의하였었다. 이 때는 이미 단위들의 총노선도 만들고 바쁘게 자신의 단위에 맞는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을 때였다. 그만큼 상층 사업을 위한 모임이 늦게 시작되었었다. 그렇다 보니 사업 하나 하나의 수행해 나감에 있어 시기적으로 여유가 없이 치러 낸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부분에 있어 건설의 논의가 늦게 되는 한계가 있었지만 대중 사업을 펼쳐 나감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하나 하나의 준비해 나가는 준비의 체계성이 부족했다.

또한 전여대협의 사업이 기층 단위로 내려가지 못하다는 우리 조직의 구조적인 모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총련과의 결합 정도가 많이 부족해 여학생운동의 전체 운동과의 관계 해명뿐만 아니라 출범식등의 행사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대로 알려내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이 부분에 있어 내년 한총련으로 여학생운동 인자를 과견할 것이 절실히 요구되어 지고 있다.

내실 있는 상반기 종화, 힘있는 하반기 투쟁!

민족의 여성 전사

남북 여학우가 통일투쟁의 주체로 당당히 서나갑니다.

분단 반세기를 끝내고 분단 조국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100만 청년 학도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있다. '통일' 이야기만 나오면 빨갱이로 몰리던 시절, 선배 동지들의 간고한 투쟁이 있었기에 지금 각계 각층에서, 심지어는 사소한 광고 문구에서도 통일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속에서 선배 청년 여학도 또한 여성이 통일의 일주체로 서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왔고, 88년 판문점 회담 성사투쟁, 89년 평양축전투쟁의 선봉적인 투쟁들이 바로 그러한 일련의 모습이었다. 89년 평축 투쟁에서는 제7센터 참여 및 150여명의 민족통일 여학생단을 조직하기에 이르고 여학운의 통일투쟁이 질적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이후 92년 건준위4기, 94년 건준위6기에는 전여대협 통선대를 조직화해내면서 다양한 통일투쟁의 전개로 전체 통일투쟁을 풍부화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해방 50년을 맞이하는 올해, 분단 반세기를 끝장내고 통일된 조국을 일구어야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건설 1기를 맞이한 전여대협의 주체적 요구로 우리는 통일운동의 일대 전환을 이뤄내야할 시기에 당면해 있다. 이에 전여대협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 이전의 전여대협 통선대의 투쟁을 이은 '통일맞이 삼천리 대행진단'의 선봉적 투쟁으로 전국에 통일 여전사의 통일의지를 돌아가면서 국민과의 통일면담을 전개한다.

둘, '정신대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일본 군국주의 부활 반대를 위한 7천만 겨레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그것을 총화하여 8.15 민족 공동행사 진행 중에 정신대 할머니들과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와 함께 접수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셋, 남북 여학우가 공히 통일시대의 일주체가 되기위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련의 투쟁들을 함께 할 것을 북녘의 여학우 주체들에게 제안해 들어가고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넷, 남북한 여학우가 통일주체로 당당히 서나가는 통일투쟁과 함께 서로의 삶을 진지하게 이해할 수 있는 편지교류 투쟁으로 조국의 통일을 앞당긴다.

여학일꾼의 통일투쟁으로 통일조국 이룩하자!

여학일꾼의 선봉 투쟁으로 통일조국 이룩하고 여성해방 앞당기자!

학내 성폭력 상담요원 학교

얼마전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이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엎고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성희롱을 해도 그것이 가볍거나 성희롱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실험실에서 20여 차례 만지고 더듬는 등 성희롱을 했던 교수는 법적으로 무죄가 되었다. 교수가 조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해온 성희롱은 인정되나 무의식적이거나 경미한(?) 실수였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성희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남성들의 성적 부도덕성을 '실수'로 보고, 그 '실수'에 대해 관대한 우리 사회의 통념을 반영한 가장 '한국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이 판결로 웬만한 성희롱쯤은 그것이 성희롱이라고 인정되더라도 여성이 참아야하는 판례가 남게 되었다.

우조교 사건 또한 학내 성폭력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처럼 교수와 조교수와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교수와 제자, 그리고 선후배, 동기들간에 일어나는 학내 성폭력은 이제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만연해 있다.

도서관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쪽지로 보내는 언어성폭력,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학교순환버스에서, 가로등이 희미한 교정의 밤길에서.. 학내 곳곳은 여학우들을 위협하는 성폭력의 위험이 가득 차 있다. 많은 사건이 여학우 개인의 인내로 참아넘기고 덮어버리면서 공개되지 않았지만 용기있는 여학우의 신고만 보더라도 학내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가를 알 수 있다. 이런 사건을 당했을 때 그래도 먼저 찾게되는 총여학생회에 또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무지와 정작 범인을 잡아도 적당한 학칙이 없음으로 인해 제대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여대협에서는 우리 여학우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내 성폭력 상담요원학교'를 열게 되었다.

1박 2일 기간동안 '학내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우리의 대처 방안'과 '상담사의 인식과 관점, 기본적인 대응 방법'에 대한 강의와 기타 성폭력에 대한 비디오 상영, 그리고 토론으로 각 학교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의 공유와 함께 학내는 물론 사회적으로 대학내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여론을 불러 일으키고 환기시켜 내고자 한다.

이것은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발점에 불과하다. 학내 성폭력 상담요원학교의 성사와 이후 대대적인 학내 선전, 그리고 학내 성폭력에 대한 설문작업을 전개하면서 그것으로 사회여론화시켜내야 한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2학기 학자 사업속에서 이러한 학내 성폭력에 대한 규제안을 요구해들어가고 가로등 설치, 화장실의 안전시설, 규찰대 강화와 함께 전문 상담요원 배치나 그 전단계로 상담전화 설치(총여)를 요구안으로 제안하고 관철시키는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그 시발점이 될 학내 성폭력 상담요원학교의 성사 여부가 학내 성폭력을 근절시켜내고 궁극적으로는 여학우들의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일구어 낼 수 있는 관건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간부 재생산, 어떻게 할 것인가?

1. 문제제기

여학생 운동을 고민하는 간부라면 누구나 간부의 재생산 문제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과, 단대, 총 단위에 이르기까지 마땅한 주체가 없어 힘들어 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이는 여학운을 하는 데 있어 기존 학생회 일꾼을 데려와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단대나 과 일꾼의 경우, 다른 일꾼들의 반발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한 기존 학생회 일꾼이 아니더라도 문제는 별반 다르지 않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계속되는 간부 생산의 문제에 있어 문제의 핵심을 되짚어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내용

토론의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의 상황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고, 어떤 것이 핵심적으로 부재한 것인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토론 1 : 간부 재생산, 왜 안 되는가?

첫째, 간부 재생산을 위한 조직의 부재

현재의 총여가 대중사업과 더불어 조직사업을 모두 훌륭히 수행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에 많은 간부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힘을 내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의 방법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낼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총여에서 간부 재생산은 그것을 전담해서 고민하는 단위의 부재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으며, 간혹 있는 간부들마저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때마다 그 하나의 문제를 떨어뜨려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수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부 재생산의 문제는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서 다른 기타 문제들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대중 사업에의 집중현상

총여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각 학교에서는 갖가지 event식 대중사업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대중 사업에 이르기까지 온 일꾼들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요즘들어 더욱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중 사업은 그 나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일꾼들을 단련시키고 사람을 남길 것인가라는 부분의 고민이 부족해 지면서 보여주기식, 내세우기식의 사업으로 그치고 맙니다. 대중 사업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중요한 대중 사업 몇 개만을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총여 일꾼들이 새로운 인자들을 만나고 이들을 키워 내는 일이 한 해를 관통하는 지속적인 흐름으로 되어야 합니다.

셋째, 여학생 운동론의 부재

우리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내용이라는 부분에서의 명확한 사상적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여대협 건준으로의 6년의 역사과 올해 제 1기 전여대협에 와서도 우리에게 사상과 내용이라는 부분은 너무나 미진한 상태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실제로 소모임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정형화된 커리의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네째, 다양한 활동 공간의 부족

일꾼들을 발굴해 낸 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어떤 활동 공간을 제공해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발굴된 인자들에 맞는 수위의 좀 더 다양한 활동 공간은 끝까지 사람을 남길 수 있는가, 없는가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기존 학생회에서 과, 단대, 총학 등으로 그 수위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여의 상황은 그러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므로 그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총여일에 함께 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집중해야 하는 일에는 함께 하는 것이 맞지만 일상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각각의 특성이 보장되는-물론 그것은 우리 내용에 기반한 것이어야 합니다-소모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섯째, 기존 학생회 여자 활동가와 여학운 활동가와의 관계

적지 않은 총여 일꾼들이 가장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으로 기존 학생회 여활가와의 갈등, 서로에 대한 이해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학생회에서 일꾼을 데려와서 총여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았을 때 주요한 간부 재생산의 걸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데려가게 해 주는(?) 측에서는 절대로 뺏길 수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거나 마치 재산하나 떼어주듯이 어깨에 힘주고 으스대는 경우까지 있어, 물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만, 선거시기 인선과정에서 총여가 입는 상처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학생회 여활가는 총여가 더 잘했으면 하는 기대치가 남활가보다 상당히 높아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와 하는 모습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절실히 집니다.

토론 2 : 보다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앞서 이야기한 원인들 속에서 어느 정도의 대안에 대한 방향은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맞추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내부 조직에 정책 주체의 마련

조직 운동에 있어 내용의 생산과 사람에 대한 고민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학교의 경우 여학운을 한 경험이 있는 선배들의 재투신으로 내용을 생산해 내고 학습팀을 구성해 이 속에서 인자를 배출하는 모범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선배들에게 이 문제를 떠맡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부 조직의 건설은 그 주체의 마련으로 시작되는 것은 맞지만 그 주체는 선배들에게 한정되기 보다 자력갱생적인 간부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직은 어떻게 건설되는가?

내부 조직이든지, 학생회로서의 대중 조직이든지 우리 조직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5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제 1 단계 : 대중사업과 조직 사업의 내부 분담에 대한 논의, 각 사업의 의의와 목표를 공유하고 합의하는 과정

제 2 단계 : 조직을 담당하는 주체의 발굴

제 3 단계 : 주체를 목표에 맞는 교사, 혹은 간사로 육성하는 과정

제 4 단계 : 수위에 맞는 소조 활동

제 5 단계 : 수위를 높여가며 조직으로의 전환

토론의 내용이 더욱 풍부해져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에 서여대협에서는 두 가지의 토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간부 재생산이 안되는 핵심적 한계는 무엇인가?
2. 조직을 건설함에 있어 모범은 과연 무엇인가?

여성운동과 여학생운동의 연대투쟁을 잘할 데 대하여

지금까지 남한의 청년학생중에서 전체 변혁운동에 참가하여 높은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여학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학생이라는 집단 전체에 대해서 소극적인 평가를 내려왔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소극적인 평가에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는다. 각 학교 총여학생회 건설 강화로 전국조직을 건설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과 봉건적 관습의 틀이 일정 정도 깨어지고 있는 사회의식의 변화로 여학생들의 주체적 삶은 학원에서 사회에서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여학생들의 가능성들을 인정할 때 여기에 더하여 사회여성들과의 연대성을 획득하여 여성으로서의 자긍심과 투쟁성을 세운다면 50만의 여학생들은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이땅 청년 여학생으로서의 선도적 존재로 변화, 발전할 것이다.

연대의 필요성

1. 여성운동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청년여학생운동은 청년학생으로서의 건강함을 지니고 있으며 사상적 통일단결성이 높고 이것을 토대로한 조직을 건설, 강화해왔다. 또한 높은 정치성으로 선도적인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이러한 선도적인 투쟁은 여성운동의 질적 발전에 복무해야 하고 이것이 여성운동속에서 여학생운동이 가지는 역할이다. 따라서 여성운동에 대한 지지, 지원 투쟁을 아끼지 않는 것과 동시에 연대를 통한 여학생운동이 가지는 한계(각계 다양한 여성들의 처지를 자신의 처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텔리적인 성향이 강함)를 극복하고 여성운동은 투쟁의 적을 명확히하는 조직의 성격을 함께 구체적으로 규명해나감으로서 사회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의 질적발전을 도모해야한다.

2. 여학생운동의 내용적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위해서

여학생운동이 학내에 한정되어 진행되는 편향이 다소 존재했다. 여학생운동이 사회여성운동의 흐름속에 같이 녹아나지 못하고 청학단위의 흐름으로만 일관했을때 여성정세를 파악하지 못하는 고립적인 여성운동을 진행하게 된다. 정세를 읽지 못하는 운동은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는 왕성한 활동을 진행할 수 없고 결국은 운동으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할 것과 마찬가지로 여대생들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자신의 계급적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투쟁을 전개하는데만 그치게 된다. 여학생운동은 여대생들이 가지는 삶의 문제를 전체 여성의 삶의 문제로 전화시켜 전면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현재 여학생운동 주체들의 역할이다.

3. 여학생운동 출신인자의 사회여성운동전개를 준비하는 기본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대다수의 여학생일꾼들이 사회에서 자신이 학내에서 일구어왔던 삶의 성과를 이어낼 수 있는 공간을 찾지못하고 개별화된 운동을 전개하고있다. 여성문제의 본질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일때 이런 개별화된 모습으로는 본질을 극복할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할 수 없고 제반 사회 여성운동의 발전에도 역량손실을 내어게 된다.

연대운동에 있어 나타나는 몇가지 생각들...

1. 사회여성단체의 경우

여학생운동조직을 조직화된 기본동력으로 보면서 일방적으로 요구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청년학생운동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지, 지원 투쟁과는 다르게 여학생운동에 있어서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여학생 대중조직

연대 운동에서 주체적인 자세보다는 사회여성단체에 배푸는 식의 연대운동을 전개한다.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선배라는 의식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저 진행하여 자신에게는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어떠한 투쟁이든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 두가지 원인으로 인해 여학생운동 인자들은 사회여성단체와의 연대에서 일방적인 부담을 가지게 되어 지속적인 연대가 되지 않는다.

3. 여성운동의 경우 자기대중에 맞는(농민회- 여성농민, 여성회- 도시여성)투쟁의 내용, 정확한 여대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투쟁의 내용이 중심사안으로 되어 연대의 지점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서로의 요구가 있을 때만 결합하는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연대운동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1. 연대 운동의 관점을 명확히 하자.

연대운동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배푸는 운동이 아니라 서로의 조직적 성과를 중심에 두면서 전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또한 목표를 명확히 하자.

- 연대 운동에서 자기 조직의 목표를 명확히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는 주체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투쟁을 전개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2.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만남이 중요하다.

여학생운동의 경우 정기적인 회의나 만남을 통해서 여성정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회적인 연대투쟁이 아니라, 쌍방의 조직적 발전, 결국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통해 서로의 견해를 좁혀들어가고 서로의 처지를 여성자신의 처지로 받아들이는 통큰 단결을 내어와야 한다.

여학생들은 취업차별 철폐투쟁등 자신의 경제적 이해에 기반한 투쟁을, 전체여성의 문제로 인식한 속에서 출발하여 계속적으로 그들과의 연대의 수준을 높혀나가면서 전체 여성운동이 당면 정치 투쟁과 전체 투쟁에도 밀접히 결합될 수 있도록 한다.

이속에서 여대협은 사회여성과 여대생의 처지의 본질적 동질성을 선전, 각계 각종여성들의 삶이 여대생 자신의 삶과 직결됨을 전체 여학생들에게 선전, 투쟁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여성문제를 발생, 심화시키고 있는 제반 사회구조적 모순과 여성에 대한 이중적 착취구조를 타파하고 그 투쟁을 상승, 발전시켜내려는 것이 여성운동에서의 여학생운동의 지위와 역할이라 하겠다.

물론 아직까지 여학생운동도 매시기마다 전체 투쟁과의 유기적 연관속에서 자신의 내용을 풀어나가지는 못하고 있고 전체 여성운동이 정치투쟁과 결합하는 것도 활동가 일부가 그냥 정치투쟁

하는것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서 논한 여학생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것을 최대한 끌어올리며 그 대중적 힘을 가지고 여성운동의 선도부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토론과제

1. 연대운동이 부문운동에서 가지는 역할에 대해서 토론해 보자
2. 현재 여성단체와의 연대운동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짚어보고 그 대안을 논의해보자.

지역여대협 상황

89년 평양축전을 계기로 많은 지역 총여학생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를 건설할 것을 결의하고 전여대협 건준위를 결성하게 된다. 그 이전에 지역에서는 87년 전국민적 항쟁의 분위기속에서 각 계급 계층의 조직이 건설될 무렵 여학생회 단위에서도 지역 여대협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었다. 현재 몇 개의 지역은 안정화된 체계를 구축해가면서 대중적인 지역 여학생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몇 개의 지구여대협 건설속에서 지역 여대협 건설로 발돋움하고 있다. 전여대협 건준위 6기를 거치면서 일구어왔던 성과와 한계를 이제는 계승과 혁신의 과제를 받아안고 1기 건설을 일구어 내게 되었다.

지역 여대협의 현재 상황과 발전 전망을 내다보며 전여대협의 전망을 그려보자.

서울지역 여대생대표자협의회(이하 서여대협)

- *87년 고대, 서울대, 성균관대를 중심으로 서여대협 건설
- *88년 북한여성바로 알기 운동을 하면서 고대, 연대 총여회장 수배, 에이즈 추방투쟁
- *89년 평양축전속에서 민족통일여성단을 꾸림 - 전여대협 건준위결성을 결의하게 됨
- *92년 보은 진관 무죄석방과 성폭력 특별법제정투쟁, 윤금이씨 투쟁에 중심으로 활동
- *95년 제1기 전여대협 의장 배출

서여대협은 여러 지역중에서 제일 먼저 여대협을 결성한 곳으로, 건설전부터 TOMBOY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 86년 권인숙양 성고문사건등 많은 여회간부들이 구속되는 속에서도 연대투쟁을 힘있게 벌여낸 저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이라는 중심지역적 상황속에서 보은 진관 석방투쟁이나 윤금이씨 투쟁등 전여대협 차원에서 벌여낸 많은 투쟁을 선도적으로 해왔다. 올해 9기를 맞으면서 전여대협의장으로 서여대협의장인 경희대 총여학생회장(이선희 92)을 배출하고 부의장으로 연세대 총여학생회장(김은숙 92)이 선출되었다. 동, 서, 남, 북부지구의 네지구로 구성되며 기지촌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경기 인천지역 여대생대표자협의회(이하 경인여대협)

경인지역은 현재 경인여대협이 건설되지못한 상황에 있다. 경인남부지구, 경인동부지구, 인천부천지구의 세 지구로 구성되어있으며 세 지구가 각각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인남부여대협의 경우 여대협회의가 어느 정도 안착화가 되고 있고 여대협차원의 사업도 벌여내고 있다. 그러나 경인동부여대협은 회의구조가 안착화되지 못하여 올해는 여대협을 이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부천지역은 아직 여대협의 틀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경인여대협으로의 발전 전망을 내면서 지구간의 역량 편차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여대협 체계의 자리매김에 힘써야 할 것이다.

경인지역은 서여대협과 함께 기지촌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했던 단위이다. 올해는 수원지역의 참사랑 쉼터의 문제로 인해 기활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경인남부여대협은 현재 경기대 총여학생회장님이 의장으로 선출되어있다.

충청지역 여대생대표자협의회(이하 충청여대협)

충청여대협은 아직 건설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지역에는 충남, 충북, 대전지역의 3개 지구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지역 또한 역량의 편차를 가지고 있다. 충남여대협은 92년에 보은 진관석방투쟁속에서 건설되어 올해 4기를 맞고 있다. 충남여대협 소속학교로는 단국대, 공주대, 고려대의 3학교가 있는데 올해 고려대가 선거를 치뤄내지못함으로 인해 의장이 아직 선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여대협은 마찬가지로 92년도에 건설되어 올해 4기를 맞고 있다. 목원대 총여회장(김미영 93)이 대전여대협 의장을 맡고 있으며 대표자회의가 비교적 안착화되어 있다.

충북지역은 아직 여대협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충북지역의 총여회장들이 모이는 자리를 가졌고 충북여대협의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대전여대협 의장인 목원대 총여회장이 충청여대협 건준위 주체로 전여대협 중상회의에 결합하고 있다. 우선 지구별 주체 모임이 안정화되는 것이 시급하고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구여대협을 안착화시키면서 충청여대협 건설의 구체적 고민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전북지역 여대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북여대협)

***88년 제1기 전북여대협 건설**

전북여대협은 지역 실정에 맞는 여학생운동을 펼쳐 나가고자 하는 진지한 모색의 과정에 있다. 지역 탁아소와 연계하여 탁아소 자원봉사활동과 후원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북지역에서 일어난 정읍 여교사 성폭행사건 해결을 위해 지역 여성단체와 연계하여 공판참여투쟁, 탄원서보내기 운동을 벌이는 등 직장내 성폭행을 막아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총여학생회의 체계고민 속에서 여학생위원회로 개편한 곳도 있고, 여러 학교가 어려운 학교 실정으로 정기적인 여대협 대표자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여대생대표자협의회(이하 남여대협)

*88년 각 학교 총여학생회가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제1기 남여대협 건설 남여대협은 9개 학교가 소속되어 있고 전여대협 건준위 결성부터 주도적으로 전여대협 건준위를 이끌어 온 4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지역)의 하나로 남여대협 소속 대부분의 학교가 단위와 과거지 여학생회가 건설되어있는 체계의 모범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지속적으로 여대협 집행위가 건설이 되고 대표자회의가 안정적으로 꾸려지고 있다. 올해 제8기를 맞이하면서 정신대 할머니 문제 해결과 평안북도 여학우들과의 편지교류 투쟁등 통일 투쟁을 모범적으로 벌여나가고 있으며 지자체 관련 여성 정치참여의 내용 등 대중적인 여대협 사업들을 펼쳐내고있다.

대구경북지역 여대생대표자협의회(이하 대경여대협)

*88년 AIDS퇴치운동의 전국적 확산속에서 총여학생회장들이 모여 연합이라는 형식으로 대구여성회와 연대하여 연대사업을 시도

*88년 12월 '양심수 석방을 위한 전대협 하루찾집'의 준비를 위해 89년 대경 신입 총여회장들의 모임이 시작되고 이를 통해 '여대생대표자협의회'의 전망을 내어옴

*90년 5월 대경여대협 정식 발족을 함

대경여대협은 올해로 6기를 맞으면서 경북대학교 총여학생회장(박경아 91)이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대구 경북지역 11개 학교를 포괄하고 있다. 매년 대경여대협 일꾼 수련회를 가지면서 회장단들 뿐만 아니라 많은 대경여대협 일꾼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열어내고 있으며 올 해 1기 전여대협 출범식도 힘있게 준비하고 치뤄내었다. 경북대를 중심으로 탁아활동의 정형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산경남지역 여대생대표자협의회 (이하 부경여대협)

*87년 부산지역 여대생대표자협의회(부여대협), 경남지역 여대생대표자협의회(경여대협)건설 - 부산지역과 경남지역 여대협이 따로 존재

*89년 부산울산지역 여대생대표자협의회(부울여대협)건설 - 부여대협이 울산지역까지 포괄

*92년 마산 창원지구 여대생대표자협의회(마창여대협), 진주 충무지구 여대생대표자협의회(진충여대협)건설논의 - 경남지역이 세분화

*94년 부산경남지역 여대생대표자협의회(부경여대협)건설

부경여대협은 이전의 많은 체계 발전을 통해서 탄탄히 자리를 굳히고 있는 지역이다.

올 해 부경여대협은 건설 2기를 맞으면서 경성대학교 총여학생회장(박대희 92)이 의장으로 동아대학교 총여학생회장(이세영 92)이 부의장으로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각각 선출되었다. 여대협 집행국이 건설되어 있으며 대의원대회와 출범식을 모범적으로 치뤄내고 있다. 정책연석회의(각 총여학생회 정책연석회의)를 조직화하면서 의장단회의의 논의력을 높히려는 체계를 모색하는 등 모범적인 지역여대협의 위상을 마련해 가고 있다.

대의원 대회와 출범식등을 대중적으로 치뤄내고 있으며 지역 여성회와의 연대에 많은 고민을 하고있다.

제주지역

제주지역에는 제주대와 제주전문대 총여(전) 두 단위가 존재하고 있으며 지역 여대협 건설을 시급히 하기보다는 여대협 고민을 할 수 있는 주체마련의 고민을 하고있다.

여학생운동의 한 길을 걷고 제실 언니들에게

언니들, 안녕하세요, 저희 경희대학 교정은 칼날 선햇살에도 아랑곳 없이 녹음에 쌓여 눈이 부시게 푸르롭니다.

벌써 제가 경희대에 몸담은지도 두해째나 되네요.

언니들, 살아가면서 삶들은 많은 선택을 하게됩니다.

저도 역시 거짓말 같은 상황의 곳곳에 놓여져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내기 적에는 갑자기 내게 열려진 세상에서 자유를 부르짖으며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찾아 세생을 밟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2학년때에 와서야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나 하는 후회와 각성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여학생운동,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을 만난건 우연이었죠. 이 우연한 만남에서저는 95년도를 총여학생회에 몸담고 걸어왔습니다.

전여대협 총회, 기획사업, 명예농 건설을 위해 꾸었던 고창에서의 활동, 그리고 지랄탄이 남발하던 투쟁의 현장들, 언니들, 우리는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울분과 분노 그리고 변치않는 희망을 가지고 땀을 흘리며 새세상을 꿈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지만 함께 걸어가는 동지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좌절과 회환을 딛고 다시 일어 설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총여학생회라는 단체는 총학생회 산하에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늘 괴리감을 있었습니다.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식구임에도 단체의 역할과 존재 이유의 타당성도 공유하지 못하니깐요. "야, 총여학생회에서 통일문제를 고민해보는게 어때? 여학생 문제만 하지 말고 다른 분야도 고민해야지!!" 모근배의 말을 듣는 순간 총여학생회가 어떤 단체로 선배에게 비쳤는지 가늠이 되더군요. 하긴 친구들은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니깐요. 심지어 뭐하는 단체냐고 묻기까지 하니깐요. 할 말이 없죠.

언니들, 조선시대의 여류시조가 허난설헌이 떠오르는군요. 허균의 누나이자 여성이라는 남존여비사상에 의해 그녀의 재능은 억압당하고 가정에서도 배척받았던 불행한 여자, 굶이굶이 한이 서린 그녀의 남아있는 몇몇 시조를 보면서 여성이라는 존재가 한 이데올로기에 매어서 저렇게 억압받아야 하는가하는 생가가울 많이 했습니다. 비단 옛날 전설같은 이야기가 아닌것 같습니다.

이시대에 와서 바라보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를 묶는 부조리한 관념이 하나둘 인가요. "여자가 왜 그러냐?" "난 여자니깐." "여성답게...." 조선시대도 아닌데 께뻘묵은 낡은 틀에 스스로를 묶는 것이 부지기 수이지요. 엄마가 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요구하는 상!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얹어매는 나의 상, 움직이지도 못하는 낡은 인형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분통터지는 일인가요. 서로가 서로의 틀을 벗겨 자유로운 인간이 되어 가는게 올바른 상이라는 걸 모두가 아는 올바른 상인데도 말이에요.

올바름을 알고도 통하지 않는 현 시대에서 우리들이 해야할 일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서로의 자리에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서로의 존재에서 힘이 되어주는, 우리의 한 길을 걸어가요. 여성해방, 인간해방의 깃발아래 그날이 오기까지 결코 내릴 수 없는 깃발을 올리고 투쟁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도 서로를 밝혀주는 희망을 소중히 품고서 말이에요.

꿈을 꾸는 청년의 모습은 아름답고 한 걸음씩 실천하는 우리의 작은 걸음은 소중한 걸음이라
생각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주위도 많이 변해가지만 언니들과 저의 후배들 그리고 선배님들이 남
기신 땀 속에서 우리의 운동은 늘 변함이 없을거예요. 힘내세요. 저도 선배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통일원년 여름의 한 가운데서
자주경희 새세대 총여학생회
'94 도 해 정 드림

수신: 조선학생위원회 산하 여학우들께

발신: 3기 한총련 산하 1기 전국 여대생 대표자협의회

지금이라도 달려가 부둥켜 안고 만나고 싶은 북녘 여학우들,
이별이 긴 랏에 기다린 시간이 너무나 긴 랏에, 슬픔은 메마를 대로 메말라 바닥
이 나고 그리움만 지천으로 떠다닙니다. 그러나 그리움을 가슴에 다지고 분단의
슬픔을 이제는 통일의 희망으로 새기면서 통일 조국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우리
여대생 부터 내딛으려 합니다.

저희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전국 여대생 대표자협의회(이하 전여대협)
여학우들입니다. 얼마전 전여대협 산하에 있는 광주전남지역 여대생 대표자협의
회(남여대협)에서 평안북도 학생위원회 산하 여학우들께 편지를 보내고 받은 답
신을 각 지역의 여대협 대표자들과 함께 읽고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통일을 향한
북녘 여학우들의 절절한 마음을 읽고 금방이라도 통일이 된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북녘에는 저희들처럼 여대생들의 자치조직이 없이 직장 여성들은 직
맹에, 광범위하게는 여맹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남한에는 민족의 자주, 평화, 통일의 일주체로 여성이 당당히 서나가고, 그것과
함께 사회에 내재하는 봉건적인 잔재에서 비롯되는 편견과 불평등요소를 쫓아가
기 위해 많은 여성단체나 자치 조직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전여대협은 6년 동안의
건설준비시기를 가지다가 올 해 1기 창립을 하게 된 남한의 여대생들의 대표조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는 지역 여대협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평안북도 학생위원회 산하 여학우들이 임시로 조직을 만들어 편지교류를 한 것
과 같이 조선학생위원회에서도 여대협을 대신할 임시조직을 만들어 이번 편지교
류 뿐만이 아니라 남북 여대생들의 삶을 공유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어내는 노릇
들이 될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합니다.

올해는 분단 50년인 동시에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여 올해는 분단된 우리민족에게는 그 어느때보다 뜻깊은 해입니다. 일본은 과
거 침략 전쟁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세계대전의 피
해자라는 등 망언을 서슴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일제 통
치의 역사 중에서 가장 비인간적이고 파렴치한 민족의 유린이었던 정신대할머니

들에 대한 배상 또한 하지 않고 있으면서 민간 차원의 보상 운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0여년 동안의 억압과 피해에 항거하는 할머니들의 피뎠힌 한의 목소리가 산천에 가득한데 조국 분단의 또 하나의 원흉인 일본은 아직도 군국주의 부활의 음모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제 정신대 문제는 정신대 할머니들만의 문제가 아닐진대 어떻게 청년 여학도로서, 자랑스런 이땅의 딸로서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전여대협에서는 일본 정부에게 정신대 문제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고 군국주의 부활음모를 규탄하는 투쟁들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이 투쟁들을 북녘의 여학우와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과 북의 여학우가 함께 민족의 유린당한 역사를 치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남한에서는 그러한 투쟁의 일환으로 서명투쟁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서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총화하여 8.15 민족공동행사가 열리는 기간 중에 정신대 할머니들과 일본대사관 앞에 가서 항의 집회와 함께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투쟁들을 함께 하기 위해 저희들은 북녘의 정신대 할머니와 여학우들을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는 일이 쉽게 진행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남북한 정부의 허가 여부도 불확실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8.15때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하더라도 그 이후 어젠가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초청사업을 진행 할 것입니다. 북녘 여학우들도 해방 50주년을 맞은 올해 남한 여대생들이 하고자 하는 투쟁의 의의를 인지하시고 북한에서도 일본의 만행을 꾸짖고 군국주의 부활음모를 단호히 거부하는 투쟁들을 함께 벌여주시기 바랍니다. 편지교류가 빨리 진행된다면 일본 정부에 보내는 남북 공동항의서한을 함께 추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방 50년, 그러나 아직도 식민지의 아픔은 온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요일이면 일본대사관 앞에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항의 집회를 하시는 할머니들, 그 분들은 결코 보상따위를 바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유린 당했던 아픈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절규이며, 멍들고 얹힌 역사의 실타래를 풀어내고자 하는 몸짓입니다. 이제 역사의 주역인 우리 청년 여학도가 할머니들의 노쇠한 손목을 잡고 함께 역사의 얹힌 실타래를 풀어내야 합니다. 분단 이전의 민족의 하나됨을 우리 여학우들 부터 일깨워 갑시다. 그리하여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음모를 파탄시키고, 진정한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우리 손으로 일깨워 냅시다.

그 첫발걸음을 내딛는 이번 편지가 무사히 조선학생위원회 여학우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복넓 여학우들에 대한 사랑으로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편지는 남북 여학우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 진지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통일원년 7. 18

1기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의장 이선희 드림

남한지역 여학생운동의 정치 사상적 과제

1. 성해방의 관점에서 본 남한사회 성격

사회성격 규정의 징표인, 주권의 소재와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의해 우리가 사는 남한사회의 성격은 식민지 반자본주의로 규정된다. 이는 45년 8.15 해방이후 미제에 모든 권력을 빼앗기게됨으로서 자주권을 상실했고, 매판 독점자본가들에 의한 기형적인 자본착취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여성의 입장에서 한가지 더 고찰해야 할것은 남한사회는 또한 봉건적 잔재가 사회 곳곳 구석구석에서 반쪽 성을 짓누르고 있는 봉건 사회라는 것이다. 이는 남한 사회의 성격 속에서 더욱 비인간적으로 거리낌없이 자행되며 봉건적 사상의(남성과 여성을 대립 분열시키는) 이용으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를 더욱 공고히 하기에 봉건 사회에 대한 인식은 여성들의 투쟁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여성 운동의 출발은 식민지 반자본주의에 봉건잔재가 농후한 남한사회 성격에서 부터이다.

이는 남한 사회의 여성이면서 대학생인 신분의 사람들에게 민족모순과 계급모순, 성모순이 있는 사회임을 인식하게 한다.

2. 여학생 운동의 정치사상적 과제

여학생운동의 특수성은 학생운동속에 여성운동이 전문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에 있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면에서는 사회운동인 여성운동에 뿌리를 두고있다할 수 있겠다. 여성운동에 궁극적 지향점은 인간해방이며 즉 인간이 자주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 건설인 것이다.

인간해방을 향한 과제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성해방이 있다 했을 때 우리가 주시해야할 지점은 성해방의 과제를 어느 시기, 어떤 관점으로 이룩하여야 하나 하는 것이다. 식민지 반자본주의 남한사회의 변혁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기본으로 이루어 진다.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이 어느 것이 먼저랄 것없이 민족해방의 실현을 내세우며 계급해방을 밀접히 연결시켜 많은 대중을 추동화하여 나아가듯 성해방 또한 민족해방, 계급해방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2천만 여성을 변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으로 병행할 과정이란 것이다.

이는 봉건적 잔재가 짓누르고 있는 남한 여성들을 자기 삶의 주체로부터 변혁

의 주체로 일떠세우는 중요한 문제이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이 변혁에 당당한 주체로 나서는다는 남성보다 뛰어넘어야 할 장애가 더 많다는 것이다. (보통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 그러므로, 남한 2천만 여성민중이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의 주체로서 인간해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기위한 노력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선도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의 지도속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사회 총체적인 문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곳곳에서 벌어지고 의도적인 성차별성은 어느 개인의 자각에 의해서만 깨어지기 힘들며 또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의 기득권세력과의 투쟁도 함께 전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운동의 조직과 매시기도 내용이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두번째로 봉건사상과의 사상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여년간의 성차별적 교육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간에 깨기 힘든 성차별 의식을 갖게 된다. 이를 단 몇마디의 말이나 몇번의 교양으로 깨기는 힘들다. 우리 운동의 당위성을 체계적으로 설파하고 매 시기 벌이는 투쟁에 있어서 인간해방의 본질적인 내용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명확히 설정하여 천명하여야 한다. 또한 선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 상황에 적용되는 지도 내용의 마련도 중요하다.

학생운동속에서 여성운동 즉 여학생운동도 위의 내용이 별개로 전개될 수 없다. 여대생이라는 계층적 특수성이 있지만 결국 2천만 여성 전반에 투영되는 굴절된 삶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현시기 여학생운동의 중심은 여대생이라는 계층적 특수성을 기반한 정치 사상전과 여성민중의 생존권적 요구(지금 시기는 여성의 생활이 아니라 생존 자체도 주체적으로 이룰 수 없기에)를 실현시키는 투쟁과 결합되어 전개되어야 한다.

사회적인 제약으로 자신의 삶에서 조차 주인으로 되지 못한 여성들에게 변혁의 주체로 일떠서길 바라는 것은 성급한 요구이다. 자신의 처지와 조건을 개선하는 정당한 투쟁으로 부터 식민지 사회 전반적인 모순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전 사회 곳곳에서 벌였던 성폭력 특별법 제정의 요구는 합법적 공간을 치고 들어가면서 여성들의 생존 상황을 개선시켰고 불완전하게 전개된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은 인간을 중심에 두지 않는 정권에 대한 불신과 그러한 정권의 통치에 대한 모순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대생 취업문제, 학내 성문제 등도 이러한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투쟁은 여학생 운동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들의 처지와 조건의 개선으로부터 삶의 주인으로 변혁의 주체로 이루기 위한 투쟁은 운동을 전문적으로 전개하는 우리들에 의해 지속적이고 끈기있게 고민되고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임 토론꺼리

1. 여성 운동이 필요한 남한 사회 성격규정
2. 현시기 요구되는 여학생 운동의 지점
3. 정치 사상적 과제 속에 지향해야될 투쟁의 장기적 구도

전국 종여학생회 주소록

지역	학교	종여학생회장	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서울	동부지구	경기대학교	이선익92	02)961\0667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1번지	130-071
		연국대학교	송지연92	02)450\3994	서울시 성동구 부진동 93-1	133-710
		광운대학교	강진92	02)910\5382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47-1	139-701
		한양대학교	오선익92	02)290\0104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133-791
		산업대학교	류지은92	02)970\7013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172	
		서울시립대학교	이영작92	02)210\2367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90	130-743
		삼육대학교	이수정93	02)972\3606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139-741
		한국외국어대학교	허나은92	02)961\4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서부지구	경기대학교	박은주92	02)390\5174	서울시 서대문구 중정로 2가 71	120-701
		명지대학교	조은경93	02)300\1649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50-3	120-728
		서강대학교	박현주92	02)705\8265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	121-742
		연세대학교	김은숙92	02)361\3645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120-749
		종익대학교	전명희92	02)320\1449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	121-791

서울	동부지구	동국대학교	김나영92	02)260\3614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100-715
		중앙대학교	김지연92	02)820\6312	서울시 동작구 복석동 221	156-756
		숭실대학교	이민정92	02)820\0161	서울시 동작구 상도5동 1-1	156-743
		성공회신학대	지한나93	02)616\0619		
		충신대학교		02)537-5101		
		단국대학교	김진주93			
	서파지구	국민대학교	김보라93	02)910\4914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61-1	136-701
		서경대학교	김경자92	02)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성균관대학교	이미경92	02)760\1430	서울시 중로구 영문동 3가 53	110-745
		한성대학교	김옥진92	02)760\4138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136-042

경 기 도	인 공 과 학 부 지 구	인천대학교	홍정희92	032)760\8191	인천시 남구 도학동 177	402-750
		서울신학대학교	김성옥	032)349\9398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101	442-742
		인천전문대학교	정강연			
		경기대학교	주정희93	0331)40\780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의익동 946	442-760
		성균관대학교	궁화연92	0331)290\511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전전동 300	440-746
		수원대학교	배경희92	0331)32\2101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외우리 산 2-2	445-743
		아주대학교	조준희92	0331)219\287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전동 산 5	442-749
		중앙대학교	신은정92	0334)675\3101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내리 산 40-1	156-763
		한양대학교	홍안나93	0345)405\2111	경기도 안산시 사동 396	425-791
		안양대학교	김연주92	0343)49\5271	(360)	
		협성대학교	김동희93	0331)292\7131	012-841-3557	

경 기 도	경 인 공 과 학 부 지 구	명지대학교	전은희92	0335)30\6114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남리 산 38-2	449-728
		용인대학교	이현진92	0335)32\6471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삼가리 산117-6	449-800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은옥92	0335)30\4155	경기도 용인군 보현면 왕산리 산 89	449-791
		강남대학교	고기영92	0331)281\5500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구갈리 산 62	449-702
		경원대학교	신은미92	0342)750\544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 65	461-701
		경희대학교	김정아90	0331)280\2807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전리 1	449-701

충 청 도	대 전 중 권	과학기술대학교	이은주93	042)868\4835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305-701
		목원대학교	김미영93	042)220\6083	대전시 중구 목동 24	301-729
		배재대학교	임소희93	042)520\5292	대전시 서구 도마2동 439-6	302-735
		산업대학교	김석영93			
	충 북 중 권	청주대학교	유 숙92	0431)51\8782	충북 청주시 내덕동 36	360-764
		충북대학교	홍미영92	0431)61\2114	충북 청주시 개신동 산 48	360-763
		건국대학교	김수진92	0441)40\3114	충북 청주시 단월동 322	380-701

충 청 도	충 북 중 권					
		서원대학교	정재은92	0431)61\8000	충북 청주시 모주동 231	360-742
	충 남 중 권	공주대학교	김영영92	0416)50\8783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314-701
		단국대학교	강미경92	0417)550\1352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29	330-714
		순천향대학교	김은영93	0418)549\1114	충남 아산군 신장면 읍내리 산 53-1	337-745

경북 대구 경북	경북대학교	박영아91	053)950\6965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	702-701
	영남대학교	김복순91	053)810\3739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712-749
	상주산업대학교	손미영92			
	경산대학교	김영숙92	053)810\9677	경북 경산시 절전동 산 75	712-240
	안동대학교	김전주92	0571)55\1661	경북 안동시 송전동 388	760-714
	대구대학교	이희진	053)770\2111	경북 대구시 서문동 707	780-711
	경북산업대학교	이재욱			
	계명대학교	백소라92	053)580\5716 620\2319	대구시 남구 대명7동 2139	705-701
	금오공과대학			경북 구미시	
경남 부산 경남	경남대학교	김희정92	0551)43\2752	경남 마산시 영실동 449	631-701
	장원대학교	이명숙92	0551)68\7962	경남 창원시 사림동 9	641-773
	인제대학교	장은하92	0525)20\3062	경남 김해시 어방동 607	621-749
	동아대학교	이세영92	051)200\6562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840	604-714
	고신대학교	이은하93	051)400\2373	부산시 영도구 통상동 149-1	606-701
	경성대학교	박대희92	051)620\4872	부산시 남구 대연3동 110-1	608-736
	수산대학교	박전진93	051)620\6982		
	울산대학교	김희영93	0522)78\2797	경남 울산시 남구 무거동 산 29	680-749
	부산대학교	지영경92	051)510\1924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609-735
	창원전문대학교		0557)79\5240		
	경상대학교	윤지연92	0591)751\5251		
	해양대학교		051)410\4149		

전라북도	전북대학교	조근희90	0652)70\3637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1가 664-14	560-756
	원광대학교	박미희92	0653)50\5114	전북 이리시 신흥동 344-2	570-749
	전주대학교	김영미92	0652)220\21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300	560-759
	군산대학교	김예현92	0654)60\1113	전북 군산시 미봉동 산 68	573-360
	전북산업대학교	김수연92			
	전주한일신학대	김경일92			
전라남도	전남대학교	이현아91	062)520\6231	광주시 북구 용봉동 330	500-757
	조선대학교	김경자92	062)230\7672	광주시 동구 서석동 375	501-759
	호남대학교	최찬란92	062)370\8371	광주시 서구 쌍촌동 148	502-791
	광주대학교	강복실92	062)670\2548	광주시 남구 진월동 592-1	
	목포대학교	김글자92	0636)450\2982	전남 무안군 강계면 도림리61	534-729
	여수수산대학교				
	서강전문대학교	서예원			
	동신대학교	이선숙			
	순천대학교	신은하			
제주도	제주대학교	이봉실92	064)54\2364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1	690-756